

한국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의 강화사:

비결속 용법을 중심으로

최규련*†

연세대 국문과

Kyu-Ryun Choi. 2003. Intensifiers in Korean, English and German: Focusing on their non-head-bound-use. *Language and Information* 7.2, 31-58.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analyse intensifiers, especially non-head-bound-intensifiers (NHBI), which can be included in the discussion and analysis of these elements as focus particles. In doing so, NHBI such as Korean *susulo*, *casin/cache*, English *x-self* and German *selbst* are dealt with in a rather cross-linguistical perspective. The pure and strict comparison between Korean, English and German is not intended.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semantic domain where the respective contributions of the expressions in question overlap, which offers the common base for the discussion regarding Korean, one of the non-European languages and English and German, two European languages. They share the semantic domain 'intensification' regarding relevant subject-NP. They introduce an ordering distinguishing center and periphery. In contrast to head-bound-intensifiers (HBIs), however, NHBI add self-involvement (directness of involvement) of subject-NP to the meaning of the relevant sentence.

I adopt the proposals of König (1991), Primus (1992) and Siemund (2000) in the treatment of intensifiers as focus particles. However, I reject König (1991) that just NHBI take scope over a whole clause, Primus (1992) that NHBI focus VPs, not NPs, and Siemund (2000) that NHBI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wo groups, viz. NHBI with exclusive readings and NHBI with inclusive readings. Evidence for my position is presented mainly in the course of describing and analysing some syntactic properties and the meaning and use of NHBI.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both the common meaning of intensifiers as focus particles and the common meaning of NHBI of three languages can be represented by a simple logical formalism. (Yonsei

*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E-mail: choikrun@kornet.net

† 이 논문의 초고를 세밀히 읽고 여러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신 세 분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미비점이나 오류를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결정적인 제안과 지적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미비점이나 오류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University)

Key words: 초점사로서의 강화사(intensifiers as focus particles), 초점과 영향권(focus and scope), 척도(scales), 중심과 주변(center and periphery), 관여의 직접성(directness of involvement), 제외 해독과 첨가 해독(exclusive readings and inclusive readings), 강화사들의 공통 의미(the common meaning of intensifiers)

1. 서론

한국어의 ‘스스로, 자신’,¹ 영어의 ‘x-self’, 독일어의 ‘selbst’가 재귀대명사 또는 재귀조응사(reflexive anaphors)로 쓰이지 않는 경우(예 (1)) 즉, 지시적으로 관련표현에 의존적인 경우 및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 공지시를 표지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용법들(예 (2))에서, 이들은 강화사로 범주화될 수 있다.

(1)(한) 순이는 스스로를/자기를/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본다. (재귀대명사/)

(영) Mary is regarding herself in the mirror

(독) Anna betrachtet sich im Spiegel.

(2)(한) 돌이가 순이 *?스스로를/*자기를/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 (강화사/강조재귀사)

(영) John says that he loves Mary herself.

(독) Hans sagt, dass er Anna selbst liebt.

그러나 이들 강화사 유형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 것인지, 그 수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외의 선행연구들(Edmonson and Plank 1978, König 1991, Primus 1992, König and Siemund 1996, 1998 등., Siemund 2000 등)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강화사에 대한 결정적인 범주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규련(2001 ㄱ/ㄷ)에서는 한국어와 독일어의 강화사를 척도 첨가 초점사 용법(예 (3))과 비척도 첨가 초점사 용법으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머리에 묶인 용법(head-bound-use)과 머리에 묶이지 않은 용법(non-head-bound-use)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²

¹ 한편으로 ‘스스로’가 부사 또는 부사적임이 언급되고,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와 ‘자신’의 강조 기능이 주목된 것은 최현배(1937/1985.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235쪽)에서가 처음이다. 성광수(1975, 1981), 김화춘(1976), 김일웅(1980), 서정수(1996) 그리고 강범모(1998) 등도 재귀대명사 ‘자신’의 강조 내지는 강화기능을 인지하고 있는 앞선 연구들이다.

² 용어가 너무 길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후로는 머리에 묶인 용법 또는 강화사를 결속용법 또는 결속강화사로, 머리에 묶이지 않은 용법 또는 강화사를 비결속용법 또는 비결속강화사라 칭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후자 경우의 강화사들은 결속강화사(예 (4))와 비결속강화사(예 (5))로 하위분류할 수 있는 바, 여기서는 비결속강화사를 주로 다룬다.

이들은 초점과 관련된 표현들이나, 원형적인 초점사들(예를 들면 예 (6) 의 척도 첨가 초점사 ‘심지어//까지/마저/조차’ 등 및 제외 초점사 ‘다만, 만,...’, 첨가 초점사 ‘역시, 도,...’ 등)이 유발하는 존재전제나 제외함의를 자체적으로는 유발하지 않는다.³

(3)(한) 대통령 스스로가/자신이 왔다. (척도 첨가 초점사 용법)

(영) The President himself came.

(독) Selbst der Präsident kam.

(4)(한) 대통령 스스로가/자신이 왔다. (결속용법(head-bound-intensifier))

(영) The President himself came.

(독) Der Präsident Selbst kam.

(5)(한) 대통령이 스스로 왔다. (비결속용법(non-head-bound-intensifier))

(영) The President came himself.

(독) Der Präsident kam Selbst.

(6)(한) 심지어 대통령이// 대통령까지/마저/조차 왔다. (주요 척도 첨가 초점사)

(영) Even the President came.

(독) sogar der Präsident kam.

이 논문은 위의 예 (5)에서 보인 비결속강화사 현상을 다루되 이들을 초점사로서 기술하고 분석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를 교차 언어적 시각으로 다루어 한 언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할 때 생기는 판단의 오류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됨을 방지하는 것이 주관심사이다. 세 언어에 대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순수 비교대조는 의도되지 않는다.

먼저 재귀사와 강화사 구분에 대한 논의에 이어, 초점사로서의 강화사가 논의된다. 후자의 논의를 위해 초점과 초점사를 규정한다. 다음으로, 비결속강화사들의 일반적인 통사적 속성들 즉 선호되는 출현위치, 핵강세 보유 여부 및 이동의 유연성 등이 논의되며, 나아가 주제화 (topicalisation), 피동화 (passivisation) 현상 그리고 영향권 관련 요소들(scope bearing elements)이 있는 문맥에서 해당 강화사들의 통사적 제약들이 기술되고 분석된다. 의미적으로, 비결속강화사는 해당 문장의 문맥과 관련

³ 초점과 초점사 그리고 존재 전제와 제외함의에 대해서는 2절 참조.

하여 ‘중심과 주변’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도입하고, 해당 문장에 ‘관여의 직접성’ 해독을 더한다. 이들이 또한 해당문장의 제외 해독과 첨가 해독에 기여하는지가 논의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결속강화사들과 비결속강화사들이 과연 영향권이나 초점으로서 다른지가 또한 탐구된다.

이어 한국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 강화사들의 공통의미가 표상된다. 이것은 이 연구논문이 결속강화사와 비결속강화사의 형식적 표상을 포기하던지(König 1991), 서로 다르게 표기한(Primus 1992) 선행연구들과 달리, 전자와 후자를 공통의 형식적 표상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2. 재귀대명사와 강화사의 구분

한국어의 강화사들(intensifiers)은 보통 재귀 대명사들(reflexive pronoun)과 형태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 독일어는 재귀대명사 ‘sich’와 강화사 ‘selbst’(와 ‘selber’)⁴가 확연히 구분된다. 한국어의 강화사 ‘스스로’와 ‘자신’은 재귀 대명사들 ‘스스로’, ‘자신’과 형태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점에서 ‘x-self’ 형태가 재귀대명사로도 쓰이고 강화사로도 쓰이는 영어의 경우와 닮았으나, 재귀 대명사 ‘자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므로 독일어와 영어의 절충형 강화사를 보유하고 있다(최규련 2001).

독일어를 제외하고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형태적으로 강화사와 재귀 대명사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전자(예 (1) 참조)와 후자(예 (2) 참조)를 일반적인 통사적 속성들에 의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Siemund 2000, 최규련 2001 ㄱ/ㄷ).

첫째, 대부분의 경우, 재귀 대명사들과 그들의 선행사들은 하나의 동일한 서술어의 공통 논항들(co-arguments)이다. 강화사들은 부가어들(adjuncts)이다. 논항인 재귀 대명사를 빼면 그 문장의 문법성이 침해되지만, 부가어인 강화사들은 생략되어도 그 문장의 문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재귀 대명사들은 명사구들(NPs)의 치환어로 기능한다. 강화사들은 명사구들을 대신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귀사들은 ‘대명사’로 부를 수 있으나, 강화사들은 그럴 수 없다.

셋째, 재귀 대명사들은 그들의 지시 용법에 있어서 언제나 어떤 선행사와 공지시 관계에 있고, 주 임무가 공지시 기능이다. 강화사들은 그들 자신만으로는 공지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간주될 수 없다.

3. 초점사로서의 강화사

3.1 초점사와 초점의 구분

국내 연구에서는 필자의 일련의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초점사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초점 연구와 초점사 연구가 자칫 혼동되어 논의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간략히 이 연구에서 이해하는 초점과 초점사에 대해 구분하

⁴ 독일어의 selbst와 selber는, 후자가 전자처럼 sogar에 상응하는 척도 첨가사로서 쓰이는 예가 없을 뿐, 대체로 문체상이나 분포상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Primus 1992 등).

고자 한다.

초점사는 Somali어의 *baa*나 *ayaa* 또는 Manam어의 *-?a*나 *-be* 같이 순수한 초점표지사⁵와는 달리, 한국어의 ‘다만, 만, 역시, 도, 심지어, 까지/마저/조차 ...’, 영어의 ‘*only, also, even, ...*’, 독일어의 ‘*nur, auch, sogar, ...*’ 등 같이 어휘의미를 가지고 있고, 초점과 영향권에 관련하여 이들이 출현하는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요소들이다. (König:1991 등, 최규련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등)

초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 논문의 주요관심사가 아니다. 앞선 연구들 중 Jacobs(1983), Rooth(1985), 그리고 어느 정도는 Jackendoff(1972)의 제안을 채용한 König(1991)의 입장을 지지하는 최규련(1997, 1998, 1999, 2000, 2001, 2002)에서의 논의대로, 초점은 다음 <가>와 같이 그리고 초점사는 <나>와 같이 규정한다. <다>는 <나>보다 간략한 형식으로 초점사를 표상(representation)한 것이다.

<가> 초점(focus)이란 관련된 초점표현(의 값)과 고려대상이 되는 선택후보들(alternatives)(보완집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⁶

<나> 초점사(focus particles)란 이러한 초점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서 초점값에 대해서 보완집합의 구성원들인 선택후보들을 고려하고, 이 값들이 초점사의 영향권(scope)내 열린 문장의 변항을 만족시키는지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초점사는 구조화된 명제(structured proposition)에 연산한다. 구조화된 명제란 초점(표현)과 초점(표현)을 빼낸 자리에 변항을 담고 있는 열린 문장으로 분석되는 명제이다(von Stechow 1982,1991; Cresswell 1985, Jacobs1983, König1991, 최규련 1998, 1999, 2000 등 참조). 다음 예 (7)은 초점사 ‘다만, 만’이 들어있는 문장이다.

(7) 다만 돌이가 순이에게 장난감을 사줬다.//돌이만 순이에게 장난감을 사줬다.

(7)같은 구조를 형식적으로 간략히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이 필요하다. 초점표현은 람다(λ)-연산자로 묶여 있는 변항으로 대치된다. 뺀혀 나온 초점표현은 오른쪽으로 옮겨지고 초점사는 이 연산 결과의 맨 앞에 덧붙여진다. (König 1991 등, 최규련 1999 등) (8)의 표상은 (7)의 예문을 이러한 규정에 의해 형식화한 것이다.

(8) 다만/만 (λx [x가 순이에게 장난감을 사줬다], 돌이)

통사적으로 볼 때, 초점사란 문장을 두드러진 부분(초점화된 부분)과 배경부분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며 문장의 두드러진 부분 즉 초점화된 부분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⁵ 한국어의 격표지사를 및 그에 준하는 ‘이/가’등 및 ‘은/는’이 초점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들도 특정한 어휘의미가 없으므로 순수한 초점표지사에 해당한다. ‘은/는’ 그리고 주제와 초점 논의에 대해서는 특히 이정민(1999) 등 참조.

⁶ 초점을 또한 초점사들에 묶이지 않은 곧 초점사들에 관련되지 않은 자유 초점(free focus)과 초점사들에 묶인 곧 초점사들에 관련된 묶인 초점(bound focus)의 두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다> 초점사 ($\lambda x (\alpha), \beta$)⁷

초점사들이 이야기시키는 문제 곧 초점표현의 값과 관련있는 선택후보들이 초점사들의 영향권내에 있는 열린 문장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초점사들은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변항을 위한 가능한 값들로서 선택후보들을 포함시키는 첨가 초점사들(한국어의 ‘심지어//까지/마저/조차, 역시/도, 부터, 이미, 아직, 특히, ...’ 등, 영어의 ‘even, also/too, already/still, in particular,...’ 등, 독일어의 ‘sogar, auch, schon, noch, insbesondere, ...등)과 선택후보들을 제외시키는 제외 초점사들(한국어의 ‘다만/만, 오직, 오로지, 겨우, 밖에/외에 + 부정(否定), ...’ 등, 영어의 ‘only, ... 등’, 독일어의 ‘nur, erst, ... 등)로 대별할 수 있다. 다음은 그 표상이다.

$$(9) (\exists x)_x \neq \beta \alpha(x) \text{ (첨가 초점사)}$$

$$(10) (\forall x)[\alpha(x) \rightarrow (x = \beta)] \text{ (제외 초점사)}$$

위의 첨가 초점사들은 존재 전제(somebody other than $\beta \alpha$)⁸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외 초점사들은 제외 함의(nobody other than $\beta \alpha$)를 보유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König ibid. 최규련 ibid. 등).⁹

한편, ‘스스로, 자신, ...’ 등의 초점사들은 제외나 첨가 분류에 있어서 모호하거나 중립적이며, 제 삼의 부류 즉 위의 원형적 초점사들과는 다른 비원형적 초점사들로 분류된다(최규련 1998, 1999, 2000, 2001 등).

3.2 비결속강화사의 통사적 속성들

3.2.1 일반적 속성들. 먼저 강화사의 일반적 통사적 속성들에 의한 초점사로서의 자격

⁷ 초점표현이 뿔혀나간 자리의 x 는 람다(λ)-연산자로 묶인 변항이다. 뿔혀 나온 초점표현 β 는 오른쪽으로 옮겨지고 초점사는 이 연산 결과의 맨 앞에 덧붙여진다. α 는 초점표현(두드러진 부분)을 뿔 나 머지 부분 즉 배경부분이다.

⁸ β 는 관련 명사(term), α 는 관련 술어(predication)이다.

⁹ 다음은 이 논문의 앞선 연구들에서 논의한 것들로서 i)은 첨가초점사가 유발한 존재 전제(최규련 2001) ii)은 제외초점사가 유발한 제외 함의(최규련 1998)의 예이다.

- i) ㄱ. 돌이(가) 역시 차를 샀다./돌이도 차를 샀다.
- ㄴ. 돌이가 차를 샀다.
- ㄷ. 돌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를 샀다.((존재)전제)
- ㄹ. $(\exists x)x = \text{돌이}(x \text{ 가 차를 샀다})$
- ㅁ. $\neg(\exists x)x \neq \text{돌이} \neg(\text{차를 샀다})$
- ii) ㄱ. 다만 돌이가 왔다./돌이만 왔다.
- ㄴ. 돌이가 왔다.
- ㄷ. 돌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안 왔다. ((제외)함의)
- ㄹ. $\neg(\exists x)[(x \neq \text{돌이}) \& \text{왔다}(x)]$
- ㅁ. $(\forall x)[\text{왔다}(x) \rightarrow (x = \text{돌이})]$

을 논의하기로 한다.

초점사들이 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위치(최규련 *ibid.*) 중 하나는 초점 표현의 바로 뒤(특히 대부분의 한국어 초점사의 경우)인데, 강화사들의 출현 가능 위치가 초점사들의 출현 가능 위치와 상응한다는 분포 특성은 이들의 초점사로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통사적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결속강화사가 한 문장내에서 관련명사구에 묶여 출현하는 것과는 달리(예 (11)), 비결속강화사는 그러한 제약이 없으며, 결속강화사와는 달리 동사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예 (12)).¹⁰

(11) ㄱ. 김 사장 스스로가/자신이 이 회장에게 박 비서를 돕겠다고 말했다.

ㄴ. 김 사장이 이 회장 스스로에게/자신에게 박 비서를 돕겠다고 말했다.

ㄷ. 김 사장이 이 회장에게 박 비서 스스로를/자신을 돕겠다고 말했다.

(12) ㄱ. 김 사장이 스스로 이 회장에게 박 비서를 돕겠다고 말했다.

ㄴ. 김 사장이 이 회장에게 스스로 박 비서를 돕겠다고 말했다.

ㄷ. 김 사장이 이 회장에게 박 비서를 스스로 돕겠다고 말했다.

ㄹ. 김 사장이 이 회장에게 박 비서를 돕겠다고 스스로 말했다.

ㅁ. 김 사장이 이 회장에게 박 비서를 돕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또한 강화사는 초점사와 마찬가지로 한 문장의 억양구조에 관여한다. 일반적으로 초점사가 있는 문장들은 초점사가 초점화한 표현이나 초점사 자신에 핵강세를 가질 수 있다. 한국어의 다른 초점사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인데(최규련 1997, 1998, 1999, 2000, 2001 등), 초점표현에 핵강세가 놓이는 것이 무표적(원형적) 핵강세 위치이고, 초점사에 핵강세가 놓이는 것이 유표적(비원형적) 핵강세 위치이다(Jacobs 1983, 1986, König 1991, Primus 1992, 최규련 *ibid.* 등). 비결속강화사들은,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모두에서 스스로가 핵강세를 받는다. 핵강세는 한국어의 경우 강화사 ‘스스로, 자신이/자체적으로’에, 영어의 경우는 ‘x-self’에, 독일어의 경우는 ‘selbst’에 놓인다.

강화사는, 관련된 명사구를 초점화하는 것에 의해 초점(focus)과 영향권(scope)에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결과 관련문장을 두드러진 부분(초점화한 표현)과 배경이 되는 부분(관련 문장 나머지)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또한 초점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¹⁰ 이러한 연유로, 결속강화사에 대해서는 그 명사성을, 그리고 비결속강화사에 대해서는 그 (문장)부사성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초점사(focus particles)로서의 강화사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므로, 바꾸어 말하면, particle로서의 강화사를 부각시키고자 하므로 여기서가 아닌 다른 지면에서 해당 강화사들의 명사성, 부사성을 상세히 다루겠다. 해당 강화사들의 명사성, 부사성 논의에 대해서는 Siemund (2000) 참조.

이들은 출현 위치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이동의 유연성을 보유한다는 점도 이들이 초점사와 공유하는 통사적 속성들이다(위 예 (11), (12) 참조).

비결속강화사(non-head-bound-intensifier)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결속강화사(head-bound-intensifie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명사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곧, 관련 명사구를 초점화한다.¹¹ 초점과 영향권의 두 매개 변수에 의해 강화사가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를 아래 (13c) 같이 간략히 형식화할 수 있다. 이는 위 <다>의 초점사 표상과 일치하므로 곧 강화사의 초점사로서의 기능을 보이는 표상이다.¹² (13γ)은 강화사가 있는 해당 예문이며, (13λ)은 (13γ)의 예문을 형식적으로 표상한 것이다. 강화사가 초점화하고 있는 표현이 오른쪽으로 뿔혀 나오고, 그 초점 표현이 뿔혀나간 자리는 x 로 대체되는데 이것은 람다(λ)-연산자로 묶인 변항이다. 뿔혀 나온 초점표현 β 는 오른쪽으로 옮겨지고 강화사는 이 연산 결과의 맨 앞에 덧붙여진다. α 는 초점표현(두드러진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즉 배경부분이다. 여기서 β 는 관련 명사(term)이고, α 는 관련 술어(predication)이다.

(13) γ. 대통령 스스로가 왔다.

λ. 스스로(x [x이/가 왔다], 대통령)

ϰ. 강화사 [$\lambda x(\alpha), \beta$]

형태적으로, 영어의 비결속강화사들은 관련 명사구와 인칭, 수, 성에서 일치한다. 독일어의 해당 강화사는 관련 명사구와 이러한 형태적 일치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의 해당 강화사는 관련 명사구와 인칭, 수, 성에서의 형태적 일치는 보이지 않으나, 조사 ‘이/가’가 수반되어 주어 명사구와의 밀접한 상호 작용을 추정케 한다.

비결속강화사들은, 한국어의 경우, 주어-목적어-동사로 된 정치 어순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또는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주로 나타난다. 이 용법에는 ‘스스로’가 주로 쓰이고, ‘자신’과 ‘자체’는 ‘자신이’나 ‘자체적으로’ 같은 변이형으로 제한된 쓰임을 보인다(예 (14), (15) 참조). 그 대신에 부사이거나 부사어들이 관련된 다른 표현들 ‘몸소, 손수, 직접, 친히’ 등이 이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표현들도 강화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14) γ. 대통령은 스스로/자신이(몸소/손수/친히/직접) 기자회견을 청했다.¹³

¹¹ 주요 초점사들은 관련 명사구와 관련 동사구 그리고 나아가 관련 문장 전체를 초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다르다.

¹² 2.1절 및 4절 참조.

¹³ 한 심사위원은 위 (14γ)에서 “자기가”가 쓰여도 자연스럽다고 보고, 이 경우 “스스로/자신”만을 강화사로 간주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자기가”가 자연스러운 경우는 ‘대통령은’이 주체어로, 그리고 ‘자기가’가 재귀대명사(조용사/호응사)로 쓰인 경우로 보인다. 필자가 ‘자신이(몸소/손수/친히/직접)’라고 쓴 이유는 바로 ‘자신이’가 재귀대명사(조용사/호응사)로 해독되는 경우를 논외로 하기 위함이었다. ‘자신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가 재귀대명사(조용사/호응사)로 해독이 되는 경우는 논외로 하겠다. 결속강화사의 경우를 다음 예에서 살펴 보자.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 자신이’는 쓰이지만, ‘대통령 자기가’는 쓰이지 않는다.

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스스로/자신이 (몸소/손수/친히/직접) 청했다.

(15) 부실 재벌은 스스로/자체적으로 (*몸소/*손수/*?친히/직접) 살길을 찾아야 한다.

영어의 비결속강화사들은, 정치어순에서 다음 (16ㄱ)처럼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출현하고 동사와 목적어 사이의 위치에 출현할 수 없으나, (16ㄴ)처럼 문장 끝이 아닌 자리에 허용되는 예외들이 있다 (Edmonson and Plank 1978: 375 참조).

(16) ㄱ. The Prime Minister insulted (*himself) the Queen himself.

ㄴ. How can I give advice when I (myself) am (myself) affected (myself)?

독일어의 비결속강화사들은 정치어순에서 다음 (17)의 예들과 같이 동사와 목적어 사이와 문장 끝에서 출현할 수 있다.

(17) ㄱ. Ich schreibe selbst ein Buch.

ㄴ. Ich schreibe das Buch selbst.

결속강화사들과 관련된 명사구들은 한정 명사구로서, 어휘사전 (lexicon)으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고유명사나 한정 표현 예컨대 지시(관형)사 ‘이, 그, 저’ 등을 수반하는 명사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반면에 비결속강화사들과 관련된 명사구들은 한정 명사구나 비한정 명사구로서, 한정 명사구와 상호작용할 때는 결속강화사들과 유사한 제약을 보인다. 비결속강화사들과 상호작용하는 비한정 명사구들은, 어휘사전으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비한정 대명사들 예를 들면 ‘누구(/누군가), 아무개, ...’ 등 및 ‘누구, 아무’에 ‘나’가 붙은 형태인 ‘누구나, 아무나’와 ‘도’가 붙은 형태인 ‘누구도, 아무도, ...’ 그리고 자신의 앞에 ‘어떤, 한, ...’ 등의 비한정 표현을 수반하는 명사로부터 그 유래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예 (18)은 결속강화사들이 비한정 명사구와 상호작용하지 않음을, 예 (19)는 그와 유사하게 비결속강화사들이 비한정 명사구와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음을 보인다. 예 (20)은 비결속강화사들이 총칭 비한정 명사구들 (generic indefinite NPs)과 보다 잘 상호작용함을 보인다 (Edmonson and Plank 1978, Siemund 2000).

(18) a. *A chieftain himself would not lead the onslaught.(Siemund 2000:45)

ㄱ. *한/어떤 부족의 족장 스스로가/자신이 공격을 이끌지 않았을 것이다.

b. *Someone/*anyone himself would know the answer.(Siemund 2000:45)

ㄴ. *아무개/누구나/누군가 스스로가/자신이 그 답을 알 것이다.

c. *Nobody himself would know the answer.(Siemund 2000:45)

ㄷ. *누구도/아무도 스스로가/자신이 그 답을 알지 못할 것이다.

(19) a. A chieftain would not lead the onslaught himself.

ㄱ. ?한/어떤 부족의 족장이 스스로 공격을 이끌지 않았을 것이다.

b. *Someone/*anyone would know the answer himself.

ㄴ. ?아무개/누구나/누군가가 스스로 그 답을 알 것이다.

c. Nobody would know the answer himself.

ㄷ. (?)누구도/아무도 스스로 그 답을 알지 못할 것이다.

(20) a. A chieftain could lead the onslaught himself.

ㄱ. 부족의 족장은 스스로 공격을 이끌 수 있었다.

b. A president should sign all important documents himself.

ㄴ. 대통령은 모든 중요한 서류에 스스로 서명해야 한다.

아래 2.2.2.에서는 비결속강화사들의 다양한 통사적 제약들을 나누어 고찰한다.

3.2.2 통사적 제약들

피동화 현상과 비결속강화사들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비결속강화사들 (예 (22), (24))은, 결속강화사들(예 (21), (23))과 달리, 피동화 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결속강화사들은 관련 명사구가 피동화 될 때 같이 피동화 되어 관련 명사구를 따라가지만, 비결속강화사들은 관련 명사구가 피동화 되어도 피동화 되지 않으며 따라가지 않는다 (Edmonson and Plank 1978: 385, Browning 1993: 84, Siemund 2000: 103, 최규련 2001ㄷ 등).

(21) (영) ㄱ. The cook himself picked some mushrooms.

ㄴ. Some mushrooms were picked by the cook himself.

(22) (영) ㄱ. The cook picked some mushrooms himself.

ㄴ. *Some mushrooms were picked himself by the cook.

(23) (한) ㄱ. 교장 선생님 스스로가 장학생을 선정했다.

ㄴ. 장학생이 교장 선생님 스스로에 의해 선정됐다.

(24) (한) ㄱ.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장학생을 선정했다.

ㄴ. *장학생이 교장 선생님에게 스스로 선정됐다.

아래 (25),(26)에서 보이듯, 영어에 대한 ‘it-분열문(it-cleft)’과 한국어에 대한 유사 분열문 (pseudo-cleft sentence) 테스트에서 위의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다.

- (25) (영) ㄱ. It was by the cook himself that some mushrooms were picked.
 ㄴ. *It was by the cook that some mushrooms were picked himself.

- (26) (한) ㄱ. 교장 선생님 스스로에 의해/자신에 의해 선정된 것은 장학생이다.
 ㄴ. *교장 선생님에 의해 스스로/자신이 선정된 것은 장학생이다.

위의 예들은 영어와 한국어의 비결속강화사들이 그 문장의 주어 명사구와 상호 작용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Siemund 2000). 이 사실은 더 나아가 이 강화사들의 초점표현이 바로 주어 명사구라는 우리의 가설 역시 지원한다 (아래 절 참조).

Siemund (2000: 106)는 한편으로 다음과 같이, 독일어에서는 비결속강화사도 피동구문에 피동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예를 제시한다.

- (27) ㄱ. Der Koch sammelte die Pilze selbst. (= 예 (22))
 (요리사가 버섯을 스스로 채집했다.)
 ㄴ. Die Pilze wurden vom [Koch selbst] gesammelt.
 (버섯이 [요리사 스스로]에 의해 채집되었다.)
 ㄷ. Die Pilze wurden vom Koch [selbst gesammelt].
 (버섯이 요리사에 의해 [스스로 채집되었다].)

논항들이나 부가어인 강화사들이, 이들이 자연스레 출현할 수 있는 독일어의 이른바 ‘중간 뜰(middle field(E), Mittelfeld(G))’¹⁴에 출현하므로, 비결속강화사가 있는 피동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간 뜰에서의 논항 즉 명사구와 비결속강화사의 위치가 매우 근접해 있어서 마치 관련 명사구와 결속강화사의 출현과 같은 점에 유의하라. 비결속강화사가 관련 명사구와 상호 작용하며, 나아가 초점화시킨다는 우리의 가설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를 독일어의 예가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피동구문들에 비결속강화사가 동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28), (29)), 이 구문들은 상응하는 명백한 능동구문에 해당 강화사를 동반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경우, 이미 피동화된 구문에 직접 비결속강화사가 첨가된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Edmonson and Plank 1978:385), 이 사실 또한 비결속강화사가, 이 자생적인 피동문의 해당 주어 명사구와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28) ㄱ. These cops have themselves once been arrested by the Sheriff.
 ㄴ. *The Sheriff has themselves once arrested these cops.

¹⁴ 정치 어순에서 문장 내 두 번째 위치에 나타나는 인칭변화 동사와 문장 끝에 나타나는 비인칭변화동사 사이

(29) ㄱ. 문이 스스로 열렸다.

ㄴ. *(누가) 문을 스스로 열었다.

주제화 (topicalisation) 현상과 비결속강화사들

비교적 자유롭지 않은 어순을 가진 영어의 비결속강화사들은 주제화되지 않는다. 해당 강화사가 주제화되어 문장의 맨 앞머리로 이동이 되어도, 그 신분이 비결속강화사가 아니라, 결속강화사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예 (30), (31), (32) 참조).¹⁵

(30) ㄱ. I didn't repair the roof myself.

나는 지붕을 스스로(몸소/손수/직접) 고치지 않았다.

ㄴ. Myself, I didn't repair the roof. ≠ ((30) ㄱ.)

스스로는 나는/나 스스로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31) ㄱ. I asked the tiler to repair the roof. I didn't do it myself.

나는 지붕 고치는 사람에게 지붕을 고치라고 시켰다. 나는 지붕을 스스로(몸소/손수/직접) 고치지 않았다.

ㄴ. I asked the tiler to repair the roof. ?Myself, I didn't do it.

나는 지붕 고치는 사람에게 지붕을 고치라고 시켰다. ?스스로(몸소/손수/직접) 나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32) It was my brother who repaired the roof. Myself, I didn't do it.

내 동생이 지붕을 고친 사람이다. 스스로는 나는/나 스스로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반면,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독일어 (예 (33))의 비결속강화사들은 대체로 주제화(topicalised) 될 수 있다 (Siemund 2000: 107-109, 최규련 001ㄴ). 즉 한 문장의 맨 왼쪽 앞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문장에 일반적으로 핵강세가 들 있는 이중 억양구조가 함께 도입된다 (Jacobs 1982, 1986, 1996, Siemund 2000). 다음 예들은 위의 영어 예들에 상응한다.

(33) (독) ㄱ. Ich habe mein Dach nicht selbst repariert.

ㄴ. SELBST habe ich mein Dach// NICHT repariert. (= (30))

(34) (독) *SELBST habe ich mein Dach nicht repariert.

그러나, Siemund (2000)가 인정했듯이, 결속강화사와 같은 해독을 이 경우의 강화사 해독에서 배제할 수 없다.

¹⁵ 여기서 해당강화사가 결속강화사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 것은 myself가 주어인 I 앞으로 이동하면, 문장 끝에 있을 때처럼 동사구나 문장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기 보다는 주어인 I와 공구성성분을 이루는 경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35) (독) ㄱ. Ich habe den Dachdecker beauftragt, das Dach
 I have roofer instructed the roof
 zu reparieren. Ich habe das nicht selbst gemacht.
 to repair I have it not myself done.
 (나는 지붕 고치는 사람에게 지붕을 고치라고 했다. 내가 지붕을
 스스로 고치지 않았다.)
- ㄴ. Ich habe den Dachdecker beauftragt, das Dach
 I have roofer instructed the roof
 zu reparieren. Selbst Ich habe das nicht gemacht.
 to repair myself I have it not done.
 (나는 지붕 고치는 사람에게 지붕을 고치라고 했다. 스스로는 나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 (36) (독) Mein Bruder war derjenige, der das Dach repariert hat.
 my brother was the man who the roof repaired has
 Selbst habe ich das nicht gemacht. (=.(32))
 myself have I it not done
 (나의 형이 지붕을 고친 사람이다. 스스로는 나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한국어에서는 비결속강화사에 ‘는’을 붙여, 다음 (37)과 같이 주제화시킬 수 있
 다.¹⁶ 이 경우 비결속강화사와 결속강화사의 경계가, 독일어의 경우와 비슷하게, 사실
 상 모호해진다.

- (37) 나는 지붕을 스스로 고치지 않았다. → 스스로는 나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제화된 한국어와 독일어 강화사의 경우, 비결속강화사와 결
 속강화사를 엄격히 구별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는데, 주제화 (topicalisation) 현상을
 대조¹⁷의 기제 (a device of contrast)로 볼 때, 이는 또한 비결속강화사의 초점화 대
 상이 관련 명사구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이다.

¹⁶ ‘는’을 붙이지 않고 ‘스스로’가 문두에서 비결속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데, 이것은 선호하는 출현위치상
 으로 볼 때 ‘부사성’을 보유한 이 강화사가 ‘온전한 부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i) 나는 지붕을 스스로 고치지 않았다. → *?스스로 나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한 심사위원은 <예문 (37)에서 화살표 뒤의 문장은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각주 15)의 문장 i)의 화
 살표 뒤의 예가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것은 다음 쪽의 (39ㄴ) 문장에서 ‘스스로’가 문장 첫 위치로 옮겼을 때 자연스럽다는 사실과 연관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37)에서 화살표 뒤의 문장 ‘스스로는 나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의 경
 우는 주제화논의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스스로’에 주제화표지 ‘는’을 붙인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
 니므로 좀 생경할 수 있으나, 화자가 의도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한 문장이다. 다음 쪽의 (39ㄴ) 문
 장에서 ‘스스로’가 문장 첫 위치로 옮겼을 때 자연스럽다는 사실은, 해당문장에서는 주어가 ‘사장은’이
 아닌 ‘사장이’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39ㄴ) 문장은 주제화논의와는 무관한 별도의 논
 의라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¹⁷ 장석진 (2000)에 의하면, 대조성은 담화상황에서 대체할 지시체의 집합에서 여타 지시체를 버리고
 특정 지시체를 화자가 선택하는 데에서 연유한다.

영향권(scope) 관련 요소들과 비결속강화사들

강화사들은, 결속강화사들이나 비결속강화사들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주요(원형적) 초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비주요(비원형적) 초점사 ‘곧’, ‘꼭’, ‘바로’, ‘하필’이 공유하는 영향권 관련 특성을 또한 공유하고 있다. 양화사와 초점사의 선순서(the linear sequence)에 있어서의 변화는 주요 초점사들의 경우 보통 의미의 변화를 초래한다(최규련 *ibid.*). 그러나 이들 강화사들은 동일한 문장 내에서의 이러한 ‘영향권 내포’ 요소인 선순서에 관한 민감하지 않다. 다음 (38), (39)의 문장들은 이 선순서 영향권 문제와 관련하여 완전히 유의적(synonymous)이다.

(38) ㄱ. 사장 스스로가/자신이 차를 운전했다.

ㄴ. 차를 사장 스스로가/자신이 운전했다.

(39) ㄱ. 사장이 스스로/자신이 차를 운전했다.

ㄴ. 스스로/*자신이 사장이 차를 운전했다.

ㄷ. 사장이 차를 스스로/자신이 운전했다.

그러나, 독일어의 경우는, 부정 요소인 ‘nicht’가 강화사와 관련하여 그 영향권을 달리 할 때 관련 문장의 해독이 달라질 수 있다 (König 1991, König and Siemund 1996, 1998 etc., Siemund 2000 등 참조).

(40)(독) Paul hat die Aufgabe nicht SELBST gelöst. (exclusive reading)

(영) ‘Paul has not solved the problem himself.’

(한) ‘돌이키는 그 문제를 스스로 풀지(는) 않았다.’

(41)(독) Paul hat die Aufgabe SELBST nicht gelöst. (inclusive reading)

(영) ‘Paul has not solved the problem himself.’

(한) ‘돌이키는 그 문제를 스스로 풀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영어와 한국어의 번역 예들을 보자. 영어의 경우는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지 않은 특성상 부정 요소 ‘not’의 위치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부정 요소에 의한 영향권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 다만 제외 해독과 첨가 해독을 다 허용하므로 중의적이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보유하나, 부정 요소 ‘않다’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¹⁸ 따라서 해독의 중의성을 역시 보인다. 다만 대조를 나

¹⁸ 한국어의 부정에 대한 연구로는 김석득 (1992) 등 참조.

타내는 ‘는’이 붙는 경우에는 제외 해독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¹⁹ 이러한 현상 또한 비결속강화사와 관련 주어 명사구와의 밀접한 상호 작용을 추정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4. 의미와 기능

4.1 초점과 영향권 문제

최규련 (2001 7)에서는 강화사들의 세 가지 용법들(위 (3),(4),(5) 참조) 모두를 초점사의 한 유형 곧 비원형적 초점사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강화사의 세 용법에서 모두, 초점과 영향권의 두 매개 변수에 의해 이들이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강화사의 다의성을 인정하면서, 세 용법 모두 관련 명사구를 초점으로 하는 전체 문장 영향권을 보유한다고 간주한다. 이 입장은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것이다.

강화사의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서, 모두 초점과 영향권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앞선 연구로 König (1991 등), Siemund (2000 등)와 Primus (1992)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강화사를 초점사로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König (1991 등), Siemund (2000 등)와 Primus (1992)의 입장을 채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입장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들 각각의 입장이 왜 배격되는지 또는 우리의 입장은 이들과 어떻게 다른지 아래 이어지는 논의들에서 다루겠다.

다음은 Primus (1992)의 예들과 그 표상에 입각한 한국어의 예로서, 예 (42)는 결속강화사, (43)은 비결속강화사의 표상이다.²⁰ (42)에서는 초점표현을 NP로 보고 NP인 ‘포로’를 오른쪽으로 뽑아내고, 초점표현이 뽑혀나간 자리에는 변항 X가 놓이는데 이는 λ-연산자로 묶인다. (43)에서는 초점표현을 VP로 보고 VP인 ‘거기에 나타났다’를 오른쪽으로 뽑아낸 것이다. λ-연산자로 묶인 변항 X는 (42)에서는 NP, (43)에서는 VP라고 표기하고 있다.

(42) 7. 포로 스스로가/자신이 웃었다.

¹⁹ 여기서 제외 해독이라 함은, 긍정문장 ‘돌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풀었다.’가 ‘돌이가 아닌 누구도 그 문제를 풀지 않았다’로 해독되는 경우이고, 부정문장 ‘돌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풀지 않았다’가 ‘돌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었다’로 해독되는 경우이다. 본문 2절 참조. 첨가 해독이라 함은 긍정문장에서 ‘돌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었다’의 해독이 가능한 경우와 부정문장에서 ‘돌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지 않았다’로 해독되는 경우이다.

²⁰ Primus (1992: 71, 81) 참조. 예들의 번호는 그녀의 것을 그대로 옮김.

- (63) (a) der Gefangene SELBST lächelte. 포로 스스로가/자신이 웃었다.
 (b) SELBST' λX^{NP} [lächelte'(X)], ^{NP} der_gefangene' 스스로/자신' (λX^{NP} [웃었다'(X)], ^{NP} 포로')
- (91) (a) der Richter erschien SELBST dort 판사가 스스로 거기에 나타났다.
 (b) SELBST' (λX^{VP} [(X) der_Richter'], ^{VP} dort_erschien') 스스로/자신 (λX^{VP} [(X), 판'], ^{VP} 거기에 나타났다.')

ㄴ. 스스로/자신' ($\lambda X^{NP}[\text{웃었다}'(X)], NP$ 포로')

(43) ㄱ. 판사가 스스로 거기에 나타났다.

ㄴ. 스스로/자신'($\lambda X^{VP}[(X) \text{ 판사}], VP$ 거기에 나타났다')

Primus(1992:81)에 의하면 위 (43)의 초점값에 대한 선택후보들은 판사의 다른 행동들로서 주어진 상황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44) 판사가 거기에 나타났다.

ㄱ. 그는 보고들(만)을 신빙하지 않았다.

ㄴ. 그는 자기의 보좌역(만)을 보내지 않았다.

ㄷ. <?>그의 보좌역(만)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Primus(1992:81)는 위의 (44ㄷ)의 '그의 보좌역(만)이 아니라'가 선택후보에 들 수 있는지에 그녀의 의구심을 나타내며, 이것이 해당 비결속강화사가 관련명사구(그녀의 표현으로는 동사구 밖에 있는 명사구)가 아닌 동사구를 초점화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 지적했듯 명사구 '판사'가 초점화될 경우에도 (44ㄷ)이 역시나 생경스러우므로, (44ㄷ)이 이상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비결속강화사가 관련명사구(그녀의 표현으로는 동사구 밖에 있는 명사구)가 아닌 동사구를 초점화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44ㄷ)이 생경한 것은 문맥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명시가 불필요한 주변정보(판사의 보좌역) 즉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명시된 데서 오는 것이며, 특정한 문맥에서 이러한 주변정보가 명시될 필요가 명백히 있을 때는 가능한 문장이다. Primus가 *가 아니라 ?로 나타낸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 초점사와 관련된 초점표현의 선택후보들은 해당 문장의 앞이나 뒤의 관련 문장들에 도는 (44ㄷ)의 '그의 보좌역(만)이 아니라' 같은 상위 언어적 표현(metalinguistic expression)으로 명시될 수 있다. (König 1991 etc. 최규련 준비 중 참조)

한편으로 동사구를 초점 표현으로 보는 경우에는 (44ㄷ) 같은 명사구 선택후보가 생경하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 명사구를 초점표현으로 보는 경우에도 (44ㄷ) 같은 선택후보가 생경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즉 (44ㄷ)이 역시나 이상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44ㄷ)이 이상하다는 것을 초점표현이 명사구인지 동사구인지 구분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Primus(1992)의 관련 논의가 처한 곤경(dilemma)이다.

한편, Plank (1979), König (1991 etc.) 등의 예문들을 보면, 강화사가 영어의 'too, either'처럼 해독될 수 있는 예문들이 있다. 아래에 제시한다.

(45) ㄱ. Ich kann heute die Kinder nicht hüten. Ich gehe selbst aus.
I can today the children not take care of I go myself out
(König 1991:92)

ㄴ. I cannot lend you any money. I am a little short of cash myself.
(König 1991:92)

(46) How can Fred complain about the odour of other people when he smells a little himself? (König 1991:93)

(47) ㄱ. Der Lehrer weiss die Antwort selbst nicht. (König 1991:92)
The teacher knows the answer himself not.

ㄴ. The teacher asked me a very difficult question and/but he did not know the answer himself. (König 1991:93)

외출하거나 (예문 (45 ㄱ)) 돈이 모자라는 사람(예문 (45 ㄴ))이 나 말고도 더 있고, 뱀 새나는 사람이 Fred 말고 더 있고 (예문 (46)), (학생들이나) 나도 답을 모르고 선생님 역시 답을 모른다 (예문 (47)). 다시 말하면, 선택후보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예들에서도 명사구이다.

이상의 영어 및 독일어 예문에서 살펴본 바, Primus가 예문 (43)과 관련하여 강화사의 본 기능인 명사구 초점화와 상관없이 동사구 자체를 초점으로 보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즉 일반적 초점 논의(이 경우, 동사구를 초점으로 규정하면, 그녀처럼 동사구 선택후보들의 집합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와 초점사로서의 (비결속)강화사 논의를 잘못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또한 아래 (48), (49)처럼 부정사 ‘nicht’가 있는 문장의 뒤에 ‘다만/단지/오직/오로지’에 해당하는 ‘nur’를 넣은 문장을 연결시켜, 강화사가 동사구를 초점화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려한다.

(48) Der wandernde Rhapsode brachte sie nicht selber zu Papier, er erzählte sie nur.

‘그 음유시인은 그 서사시를 스스로 종이에 적은 것이 아니다. 그는 그것을 다만 읊었을 뿐이다.’

(49) Rubens stellte beschädigte Zeichnungen selbst wieder her, er fertigte sie nicht nur an.

‘루벤스는 훼손된 그림을 스스로 다시 그렸다. 그는 그것을 제작만 한 것이 아니다.’

위 (48), (49)에 관련된 초점값의 선택후보들을 명시하는 것에 의해서 관련된 초점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해 보기로 한다. (48),(49)에서는 ‘다만, 만 (독일어 nur)’과 관련된 초점표현이 관련 문장 전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앞 문장에서 강화사가 지 포함한 문장 전체가 ‘다만, 만 (독일어 nur)’과 관련된 초점표현의 선택후보가 된다. (초점과 영향권의 확대 현상에 대해서는 최재용 1996, 최규련 1999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다만, 만 (독일어 nur)’이 들어있는 (48),(49)의 뒤 문장들은 각각의 앞

문장에서 강화사의 초점이 명사구인지 동사구인지의 구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분의 근거로 부적절하다. 더욱이 (48)의 앞 문장에서는 ‘그 서사시를 종이에 적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유추해 낼 수 있고, (49)의 앞 문장에서는 루벤스가 훼손된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두 경우 모두 명사구 관련 선택후보들을 상정하고 있다. 좀더 상세히 부연 설명하자면, 부정 문장인 (48)의 앞 문장 ‘그 음유시인이 그 서사시를 종이에 적은 것이 아니다.’에 대해 긍정 문장 ‘다른 사람이 그 서사시를 종이에 적었다.’가 대응이 되어 ‘x가 그 서사시를 종이에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열린 문장에서 다른 사람이 배제되는 제외 해독이 된다. 마찬가지로, 긍정 문장인 (49)의 앞 문장 ‘루벤스가 훼손된 그림을 다시 그렸다.’에 부정 문장 ‘다른 사람이 훼손된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았다.’가 대응이 되어 ‘x가 훼손된 그림을 다시 그렸다.’라는 열린 문장에서 역시 다른 사람이 배제되는 제외 해독이 된다. 각각의 열린 문장과 관련된 선택후보들로서 이렇듯 명사구 관련 선택후보들을 상정하게 된다. 이러한 제외 해독 기능은 아래 3.3 절에 보이듯 첨가 해독 기능과 함께 비결속강화사들이 해당 문맥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들이다. 즉, (48),(49)의 앞 문장들에서는 이들의 제외 해독을 통하여 알 수 있듯 명사구들이 관련 초점표현이다.

한편,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 초점사와 관련된 초점표현의 선택후보들은 해당 문장의 앞이나 뒤의 관련 문장들에 또는 상위 언어적 표현으로 명시될 수 있다. 여기서 필자의 초점사 논의와 일반적인 초점 논의가 또한 구분된다. (50)에서는 초점표현 ‘그 음유시인’에 대응하는 ‘다른 사람들’이, (51)에서는 초점표현 ‘루벤스’에 대응하는 ‘루벤스의 제자들이나 후세사람들’이 즉 명사구들이 ‘뒤따르는 관련문장들에 명시된 선택 후보들이다. 아래 (50),(51)에서 보듯, 초점표현이 있는 첫째 문장과 선택후보들이 명시된 셋째 문장들이, 별 무리 없이 공통텍스트를 이룬다. 이 경우 그녀가 덧붙인 둘째 문장들은 강화사가 있는 문장들이 서술하는 것을 부연 서술하는 문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50) 그 음유시인은 그 서사시를 스스로 종이에 적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다만 읊었을 뿐이다. (그 음유시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음송) 서사시를 종이에 적었다.

(51) 루벤스는 훼손된 그림을 스스로 다시 그렸다. 그는 그것을 제작만 한 것이 아니다. 루벤스의 제자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그의 훼손된 그림을 다시 그린 것이 아니었다.

또한, 다음 (52), (53)과 같은 실례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비결속강화사가 초점사 ‘다만, 단지, 오직, 오로지, 만, 역시, 또한, 도…’등과는 달리, 비록 출현 위치상으로는 동사구를 수식하고 있으나, 초점화시키는 것은 관련 명사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¹

²¹ 위의 예들에서 ‘스스로’의 기능을 재귀대명사 기능과 강화사 기능의 두 경우로 다 해석할 수 있다. ‘스스로’가 재귀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스스로’가 주어 기능을 할 때이다. 필자는 ‘스스로’가 주어

- (52)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게 하니 아이가 혼자서 부쩍 크는 느낌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 대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아들을 꼭 껴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고. (2001년 6월호 여성중앙 - 강은영기자 <사람과 화제: IQ 175 13살 아들을 포항공대 대학생으로 만든 보통 아버지 송재열씨> 중)
- (53) 그는 아들을 키우면서 제일 조심한 것이 스스로 무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어른들 잣대로 아이들 창의성을 짓밟는 게 머리 좋은 아이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 (2001년 6월호 여성중앙 - 강은영기자 <사람과 화제: IQ 175 13살 아들을 포항공대 대학생으로 만든 보통 아버지 송재열씨> 중)

이제 우리는 위의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결속강화사나 비결속강화사 둘 다 머리 즉 관련된 명사구를 초점화하며, 동사구를 초점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더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비결속강화사들이 그들의 초점으로 한 절(또는 문장)의 주어 곧 동사구가 아니라 관련 명사구를 선택한다는 가정은, 강화사들과 그들이 들어있는 구(또는 문장)의 주어 사이에 일종의 의미상의 일치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König 1991:91). 앞서 언급했듯, 이 종류의 영어 강화사들이 주어와 인칭, 성 그리고 수에서 일치를 보인다는 점 외에, 이 강화사들이 특정한 주어 즉, 사람 및 유정물 또는 그에 준하는 것, 태양이나 사람 등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빛, 열 등을 내고 또는 특정한 작업을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별, 컴퓨터, 로봇, 기계 등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위의 Primus (1992)의 입장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을 제공한다.

- (54) 이봉주가 자신의 세계 신기록을 스스로 깼다.
- (55) 우리 사회가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
- (56) 4살박이 아이가/강아지가/*바람이 그 문을 스스로 열었다.
- (57) 반딧불은/별은 스스로 빛을 낸다.
- (58) 컴퓨터가 스스로 파일을 저장한다.
- (59) 로봇트가 스스로 밥짓고 빨래한다.
- (60) 스위치만 켜면 기계가 스스로 작동한다.

기능을 하는 경우 즉 재귀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논외로 하고, ('아이가'라는 주어가 명백하거나 중복되므로 생략된) 비결속강화사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를 논외의 대상으로 한다. 즉 (52)는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게 하니 ...'로, (53)은 '... (아이가) 스스로 무얼 하지 말라고 ...'로 해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는다.

(61) 고속열차가 운행도중에 스스로 멈춰 섰다.

König (1991:90-92)는 다음 (62), (63)에 상응하는 예들을 들고, 결속강화사들은 결코 부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비결속강화사들은 부정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정을 제 영역속에 포함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강화사가 부정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비결속강화사와 결속강화사를 구분하는 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강화사의 영향권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래 (63ㄱ)의 강화사는 첨가 기능 - 예컨대, 답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을 하는 것으로, (63ㄴ)의 강화사는 제외 기능 =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 예컨대, 그의 운전기사가 씻었다 -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독할 수 있다고 본다.

(62) 대통령 스스로가/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Der Präsident selbst wird nicht an der Konferenz teilnehmen.

(63) ㄱ. Der Lehrer weiss die Antwort selbst nicht.

선생님이 스스로 답을 알지 못했다.

(“The teacher does not know the answer himself”)

ㄴ. Der Direktor wäscht sein Auto nicht selbst.

사장이 스스로 자기 차를 씻은 것이 아니다.

(“The Director does not wash his car himself”)

이에 반해 Siemund (2000:48-49)는 다음 예들 (64)의 각각에 모두 (65)의 예들이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결속강화사들도 제외 해독 -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은 알았다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4) ㄱ. I myself had no clue at all. 내 스스로가/자신이 조금도 몰랐다.

ㄴ. Myself, I had no clue at all. 내 스스로는/자신은 조금도 몰랐다.

ㄷ. I had myself no clue at all. 나는 스스로 조금도 몰랐다.

(65) ㄱ. My brother would have known the answer to such a difficult question.

내 동생은 그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을 텐데.

ㄴ. John had already heard that Mary was going to marry.

John은 mary가 결혼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이것은 결속강화사들도 부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즉 문장 전체가 이들의 영향권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König (1991:90-92)의 위의 두 주장 곧 결속강화사가 부정의 영향을 결코 받지 않는다는 주장과 따라서 결속강화사는 관련 명사구가 초점인 동시에 그 영향권이라는 - 예컨대, 아래 예 (66)에서, ‘대통령’이 초점인 동시에 영향권이라는 - 주장은, 따라서 둘 다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한국어의 경우를 살펴 보자. 다음 예 (66)은 한편으로 첨가 해독 -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있다 -이 가능한 반면에, 강화사에 ‘는’을 덧붙이거나 ‘참석하지’에 ‘는’을 첨가하면, (67ㄴ) 같은 제외 해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달리 말하면, 결속강화사도 부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강화사의 영향권도 문장전체이다.

(66) 대통령 스스로가/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67) ㄱ. 대통령 스스로는/자신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ㄴ. 대통령 스스로가/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비서관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4.2 중심 (center)과 주변 (periphery) 그리고 관여의 직접성 (directness of involvement)

앞 절에서 논의했듯, 결속강화사와 비결속강화사가 모두 관련 명사구를 초점화하고 관련된 열린 문장전체가 이들의 영향권이라면, 전자와 후자 사이의 통사적 분포상의 차이 곧 출현 위치와 수식하는 대상의 차이가 야기하는 의미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선 양자 사이의 의미상의 공통점은 고려되는 선택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곧 크게 둘 - 중심(인물)(center) 그리고 관련된 주변(인물)(periphery) -로 대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도입되는 척도²²는 ‘중심’과 ‘주변’으로 나눈 특수한 척도이다. 선택후보들과 척도에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것이 그러한 제한이 없는 주요 초점사 ‘다만, 만, 역시, 도, 심지어//까지/마저/조차 ...’류와 다른 점이며, 이것이 강화사들을 비원형 초점사로 분류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차이점으로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전자가 주로 중심(인물)(center) 그리고 주변(인물)(periphery)으로 관련 대상들을 양분하는 것과는 달리, 후자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특성상, 이 강화사가 들어 있는 문장에서 관련 명사(term)가 관련 서술(predication)에 ‘관여하는 정도가 보다 직접적’(directness)이라고 추가적인 분석을 더할 수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Edmonson and Plank 1978, König 1991, Siemund 2000).

다음 예 (68), (69)에서는 ‘중심(center)’과 ‘주변(periphery)’이 텍스트 상에 명시되어 있다(König 1991, Siemund 2000 등). 친척이나 친구 관계 등을 나타내는 데

²² Horn (1972), Gazdar (1979), König (1991), Löbner (1991) 등 참조. 척도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조적인 표현들의 집합 - 순서 배열로 된 집합 즉, 예를 들면, 양화 척도, 척도 형용사들의 의미에 깔려 있는 척도, 또는 시간 척도 등인데, 의미강도에 따라 하나의 선상에 등급에 따라 배열될 수 있다. 따라서 척도는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언어표현들 <e1, e2, e3, ... en>의 집합이다.

i) ㄱ. e1이 e2에 문장 틀 S에서 대체되면 우리는 잘 이루어진 문장을 얻는다.

ㄴ. Se1은 Se2를 함의하고, Se2는 Se3를 함의하고, ...그러나 그 역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있어서 자립적인 표현들 혹은 정보성이 현저한 경우 등이 ‘중심(center)’이 되고 자립적이지 않은 표현들 혹은 정보성이 덜 현저한 경우 등이 ‘주변(periphery)’이 된다. 그 역의 경우는 대체로 성립되지 않는다.

(68) 대통령(중심)이 스스로/자신이(몸소/손수/친히/직접) 기자회견을 청했다.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관(주변)이 아니라)

(69) 돌이(중심)가 스스로/자신이 힘든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돌이의 동생(주변)이 아니라)

(68), (69)의 ‘대통령’, ‘돌이’는 초점표현으로서 해당 문맥과 관련된 선택후보들은 각각 ‘장관, 대통령 비서관 등’, ‘돌이의 동생’이 되며 해당 (인간)관계에서 중심이거나 정보성이 현저하므로 중심 인물이고, ‘장관, 비서관 등’, ‘돌이의 동생’은 그렇지 않으므로 중심이 아닌 주변 인물이다. 또한, ‘스스로’의 통사적 출현 위치에 따른 부사성에 의해 어휘의미인 ‘직접 하다’, ‘시켜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다’의 해석이 덧붙여진다. 곧 ‘관여의 직접성’ 해석이 더해진다. 예문 (68’)의 경우, 행위에 대한 명사(term)의 관여의 직접성 여부에 있어서 중립적이거나 모호하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청했을 수도 있고,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시켜서 했을 수도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했는지, 여론이나 보좌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지 여부도 모호하다.

(68’)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청했다.

한편 (68”)처럼 중심인물이 대통령이고 주변인물이 야당 국회의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해당 결속강화사는 중심인물인 대통령 과 주변인물인 ‘야당 국회의원’으로 된 척도를 도입하나 위 예문 (68)처럼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의 여부는 역시나 모호하고 중립적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청했고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문제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한다며), 그에 이어 언론을 멀리해야 한다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청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기자회견을 과연 대통령이 직접 청했는지, 비서관이나 담당 보좌관을 통해서 했는지, 또한 국민의 요청이나 보좌관들의 건의에 의해 했는지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68”) 대통령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청했다.(야당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위 (68),(69)에서는 비결속강화사의 부사성 어휘의미가 부가되어 관련 명사(term)가 관련 서술(predication)에 ‘관여하는 정도가 직접적’(directness)이라고 추가적인 분석을 더할 수 있다.

4.3 ‘제외 (restriction/exclusion)’와 ‘첨가 (inclusion/addition)’

주요 초점사들은 그들의 영향권내 열린 문장의 변항을 위한 가능한 값들로 그들의 초점값에 대한 선택후보들을 포함시키거나(‘역시, 도, 심지어//까지/마저/조차...’) 제외시킬 수 있다(‘다만, 만...’)(2.1절 및 각주 9) 참조).

비원형 초점사에 속하는 강화사들은 존재 전제 유발 문제와 제외 함의의 보유 여부 문제에 관련하여 두 가지 부류로 구별될 수 있다는 점, 즉 척도 첨가 초점사로서의 용법(예 (3) 참조)에서는 존재 전제를 유발한다고 간주되나 나머지 두 용법(예 (4),(5) 참조)에 있어서는 척도 첨가 초점사와 같은 존재 전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규런 (2001 7)에서 논의되었다.

앞선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Edmonson and Plank (1978)에서는 주로 ‘제외’ 해독의 비결속강화사들 즉, 고려되는 선택후보들이 관련된 열린 문장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비결속강화사들을 논의하였는데, Plank (1979)에서는 주로 ‘첨가’ 해독의 이 부류 강화사들 즉 고려되는 선택후보들이 관련된 열린 문장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비결속강화사들을 논의하여 강화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해독들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König (1991)는 이 강화사들이 들어있는 문장의 ‘제외’ 나 ‘첨가’ 해독은 강화사 자체의 기능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문맥조건들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의 Siemund (2000)는 대부분의 실례들에서 이 강화사들이 ‘제외’와 ‘첨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강화사들을 다시 두 가지로 하위분류하고 이들의 다의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Siemund (2000 등)는 비결속강화사를 다음 예 (70 7, 71)과 같이 제외 기능과, 예 (71 7, 72) 과 같이 첨가 기능으로 나눈다.

(70) 7. He wrote the article himself/alone/on his own/anyone's help. (exclusive use)

71. The managing director appeared himself/personally.

(71) 7. I can speak Russian myself. (inclusive use)

72. I cannot help you right now. I'm working myself.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 최규런 (2001 7)에서는, 강화사들이 초점사의 기능을 대체로 수행하고 있으나, 첨가 초점사나 제외 초점사로 양분할 수 있는 원형적 초점사가 아닌 비원형적 초점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존재 전제도 유발하지 않고 제외 함의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 즉 이 문제에 있어서 정해져 있지 않고 모호(vague)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비결속강화사가 수행하는 의미기능을 ‘제외’와 ‘첨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 (Siemund 2000 등), 즉 이 비결속강화사가 다의적인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강화사 일반에 대한 논의를, 비결속강화사의 하위분류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류의 강화사의 다의성을 원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비결속강화사는 그 의미기능이 ‘제외’나 ‘첨가’ 어느 한쪽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한 모호하다. 이 문제에서는 관련된 문맥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의 예들 (72)에서 일반적인 테스트들인 함의 테스트와 담화수용성 테스트에 의해 문제의 강화사들이 첨가 초점사와 같은 존재 전제 유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함의 테스트는 전제들이 그들의 수반 문장들의 함의의 한 형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래서 A가 B를 전제할 때는 언제나 화자는 A를 발화하고 동시에 not-B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아마 not-B 그리고/혹은 A’의 단언은 명백한 모순을 초래한다. 담화 수용성 테스트는 보통 함의들에 반(反)해서 전제들을 맞춘다. A가 B를 전제하면 언제나 ‘B 그리고 A’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담화의 한 편을 형성해야 한다.

(72)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 (존재 전제 불성립)

ㄱ. (명백한 모순이 성립하지 않음) 아마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스스로(/자신이) 왔다.

ㄴ. (담화 수용 가능) 다른 사람이 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자신이) 왔다.

존재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첨가 기능이 첨가 초점사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 비결속강화사 고유의 기능이 아니라는 점과 상통한다.

그렇다면 비결속강화사들의 제외 기능은 문맥 조건들을 도외시킬 수 있는 이들의 고유의 기능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최규련 (2001 7)에서는, 위에서 기술된 제외 초점사 ‘다만’과 ‘만’ 같은 제외 함의 (β 가 아닌 다른 사람은 α 하지 않았다)²³는, 강화사가 있는 문장은 문맥에 따라 보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제 이것을 비결속강화사의 예를 들어 논의에 적용해 보겠다.

(73) ㄱ. 하나님은 스스로(/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

(74) ㄱ. 돌이가 스스로(/자신이) 순이를 사랑한다.

ㄴ. 돌이 아닌 다른 사람은 순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 (73)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천지창조를 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제외 함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74)에서는 그러한 문맥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 함의가 보유되지 않는다. ‘제외’ 기능 역시 비결속강화사 고유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공통의 기본의미

결론적으로, Primus (1992)나 König (1991)의 주장과는 달리, 비결속강화사와 결속강화사는 하나의 단순한 형식적 표상으로 표기될 수 있다.

²³ 여기서 β 는 관련 명사(term), α 는 관련 술어(predication)이다. 각주 8) 참조.

다음 (75 ㄱ) 은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에 공통으로, 초점사를 지닌 문장의 일반적인 형식적 표상 (representation)으로서((8) 참조), 역시 초점과 영향권의 두 매개 변수에 의해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강화사의 의미를 이에 준하여 (75 ㄴ)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13ㄷ) 참조).

(75) ㄱ. 초점사 $\{\lambda x(\alpha), \beta\}$

ㄴ. 강화사 $[\lambda x(\alpha), \beta]$

이제 우리는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에 공통된 비결속강화사들의 기본의미를 아래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이것은 세 언어들의 비결속강화사들이 결속강화사들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의 핵 즉 의미의 공통분모에 해당한다 (최규련 2001 ㄱ).

(76) 스스로/자신//X-self//selbst $[\lambda x(\alpha), \beta]$

6. 요약 및 맺는 말

이 연구의 주목적은 한국어의 비결속강화사 ‘스스로, 자신, 영어의 ‘x-self’, 독일어의 ‘selbst’가 초점사로 쓰이는 현상에 대해 교차언어적인 시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세 언어에서 공히 재귀사와 강화사를 구분하고, 강화사를 다시 결속강화사와 비결속강화사로 분류하였으며, 초점사로서의 강화사 특히 비결속강화사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강화사는 의미의 매개변수인 초점과 영향권에 의해 관련된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 이것이 강화사를 초점사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강화사는 비원형 초점사로서 원형 초점사들에 비해 고려되는 선택후보들의 집합의 구성원들이 보다 한정적이다. 즉 강화사가 초점화하는 표현들이 ‘중심’이며, 상응하는 선택후보들이 ‘주변’이다. 주요 초점사들은 관련된 선택후보들의 집합의 구성원 자격에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이들이 한 문장 안에 문맥과 관련된 척도를 도입하더라도 ‘중심’과 ‘주변’으로 된 척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역시나 이러한 제한이 없는 척도를 도입하는 주요 초점사와 다르다. 강화사들은 관련 명사구를 초점화하나, 주요 초점사들은 관련 명사구와 관련 동사구 그리고 나아가 관련 문장 전체를 초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기능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통사적 속성으로서, 비결속강화사들은 세 언어에서 공히 출현하는 위치가 일반적으로 관련 명사구와 분리되어 있다. 또한, 결속강화사들과는 달리, 관련 명사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한정 명사구나 비한정 명사구 중 어느 한 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비결속강화사들은, 동사구 또는 문장전체를 수식하는 통사적 특성, 즉 ‘부사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강화사들은 문장 내에서 핵강세를 받고, 문장 내 출현 위치가 한국어의 정치어순의 경우, 주어와 목적어 또는 동사 사이이며 영어와 독일어의 경우 문미나 문중이다. 핵강세 보유 여부를 통해 문장의 억양구조에 관여하고, 출현상의 위치 선정과 이동에 있어서 유연함을 보인다.

통사적인 제약에 있어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이 강화사들이 출현한 채로 피동화는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이미 성립된 피동문에 이 강화사들이 첨가될 수는 있

다. 독일어의 경우는 개별언어의 특성을 보여 강화사들이 출현한 구문들이 무리 없이 피동화 되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주제화는 영어의 경우 실현될 수 없으나, 한국어와 독일어의 경우는 실현되지만 강화사 신분이 결속강화사와 비결속강화사 사이에서 모호하게 된다. 영향권 관련 요소의 하나인 선순서는, 의미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변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특히 독일어의 경우 문제가 되는 또다른 영향권 관련 요소 'nicht (부정 요소)'는 강화사가 이 부정 요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그 해독에 영향을 미친다. 영어는 부정요소의 문장 내 위치가 변하지 않는 비교적 자유롭지 않은 어순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정 요소에 관한 한 영향권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며 따라서 중의적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부정 요소의 위치 변동이 아니라 강화사에 '는'이 붙는 경우 제외 해독을 유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의적이다. 즉 부정 요소 자체에 관한 한 영어의 경우처럼 영향권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

비결속강화사들은 한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초점 및 그 영향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문맥과 관련하여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인 특수한 척도를 도입한다.

'스스로의 관여(self-involvement)/관여의 직접성(directness of involvement)'을 이 강화사들의 의미의 부가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비결속강화사들은 주요 초점사들과 달리 존재 전제를 유발하지 않고, 제외 함의도 보유하지 않는다. 이들의 기본의미는 다른 강화사들과 공유하는 공통의 의미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 중에 비결속강화사들이 동사구를 초점화한다고 보는 Primus (1992)의 입장은 반증들을 통해 배격되었다. 이들은 관련 명사구를 초점화한다. 비결속강화사들만이 한 문장 전체를 영향권으로 삼는다는 König (1991)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비결속강화사들에 있어서 제외해독과 첨가해독 기능에 따른 하위분류가 더 필요하다는 Siemund(2000)의 주장은, 제외 해독과 첨가 해독이 비결속강화사들 고유의 기능들이라기보다는 문맥 조건들과의 상호 작용하에 얻어지는 것으로 보아 배격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에서 강화사들은 결속강화사 뿐만이 아니라 비결속강화사 부류도 역시 관련된 명사구의 강화/초점화 기능을 수행하며, '중심'과 '주변'으로 이루어진 척도의 도입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비결속강화사는 결속강화사와는 달리, 관련 문장의 의미에 관련된 명사구의 '관여의 직접성'을 더한다. 관련된 명사구의 강화/초점화 기능을 토대로, 강화사 일반의 공통의 의미와 세 언어들의 비결속강화사 공통의 의미가 공히 간략한 형식적 의미 표상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강범모. 1998. 문법과 언어 사용 - 코퍼스에 기반한 재귀사 '자기, 자신, 자기자신'의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1, 165-204쪽.

-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 서정수. 1996. *한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성광수. 1981. 한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재고 - 자기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글 172.
- 이정민. 1999. Topic, contrastive Topic and Focus: What's on Our Minds. Plenary Paper presented at the 2nd Int'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July 27, 1999, Waseda, Tokyo.
- 임홍빈. 1987. *한국어의 재귀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 장경희. 1990. *조용표현, 한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아출판사.
- 장석진. 1986. *조용의 담화 기능: 재귀 표현을 중심으로*, 한글 194.
- _____. 2000ㄱ. *통합문법의 기술: 주제-초점과 시점*,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발표 (Unified Grammar: Topic-Focus and Point of View, Sogang University Language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5/20/2000)
- _____. 2000ㄴ. Information Unpackaging: A Constraint-based Grammar Approach to Topic-Focus Articu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0th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UCLA, 10/13/2000.
- 최규련. 1999. 초점과 영향권 - 국어 초점사 '다만, 역시, 심지어' 그리고 '-만, -도, -까지/마저/조차'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6.
- _____. 2001ㄱ. 국어 강화사 '스스로, 자신'의 의미와 기능 - 초점사로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2001년 2월 8일 한국어언어학회 겨울 학술대회 (연세대) 발표논문.
- _____. 2001ㄴ. 독일어 강화사 'selbst'와 한국어 강화사 '스스로, 자신'의 비교 대조, 2001년 4월 28일 한국독어독문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신대) 발표논문.
- Atlas, J.D. and Levinson, S.C. 1981. It-clefts, informativeness, and logical form: radical pragmatics. In P. Cole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Edmonson, J.A. and Plank, F. 1978. Great expectations: An intensive self analy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 373-413.
- König, E. 1991.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A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önig, E. 2001. Intensifiers and reflexive pronouns. In M. Haspelmath, E. König, W. Oesterreicher und W. Raible (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747-760.
- König, E. and Siemund, P. 1996. Selbst-Reflektionen. in G. Harras (ed.), *Wenn die Semantik arbeitet Festschrift für Klaus Baumgärtner*. Tübingen: Niemeyer, 277-302.
- Plank, F. 1979. Zur Affinität von *selbst* und *auch*, in H. Weydt (ed.), *Die Partikeln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de Gruyter, 269-84.
- Primus, B. 1992. Selbst - Variants of a scalar adverb in German. In J. Jacobs (ed.), *Informations Struktur und Grammatik*.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54-88.
- Rooth, M. E. 1985. *Association with Focu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Siemund, P. 2000. *Intensifi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Taglicht, J. 1984. *Message and Emphasis. On Focus and Scope in English*. London.
Wall, R. 1972.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Linguistics*. Englewood Cliffs

접수일자: 2003년 11월 11일

게재결정: 2003년 11월 30일